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① - 미국

미국 금융위기와 고용관계의 변화

한바란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현재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왔다. 2008년 10월, 14년 만의 최고의 실업률인 6.5%¹⁾를 기록한 미국의 최근 고용관계 추이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

■ 미국의 금융위기

2007년 여름 미국의 주택 서브프라임 위기로 야기된 투자은행들의 도산, 금융시장의 붕괴, 그리고 원유와 생필품 및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은 2008년 7월 이후 전 세계적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다. 신용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고 상품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기업들의 파산과 구조조정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맞서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악성부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 공황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이러한 정책이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쳐 경기부양을 가져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

1)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cps/tables.htm>

릴 것이다. 또 상황 자체의 심각성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많은 정부지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신용규제가 강화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급감한 소비 심리 때문에 상품수요가 줄어들어 실제 해고를 당하거나 앞으로 해고 등을 통한 소득감소 가능성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의 늘어나고 그러하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상품 수요는 더욱 더 줄어들고 해고는 더 늘어나게 된다는 데에 있다.

■ 실업률

최근 10년간 미국의 실업률²⁾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9·11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었을 당시 실업률이 한 차례 증가했던 이후 이렇게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2008년 9월 6.1%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0.5% 올라 10월엔 14년 만의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 OECD는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해서 2010년에는 약 7.5~7.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2008년 들어 10월까지 1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중 60만 명은 7월 이후 해고되었으며 10월 한 달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만 해도 24만 명에 달한다. 일자리 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⁴⁾ 그리고 금융업 및 서비스업이다.⁵⁾ 현재 미국 달러의 강세로 인한 수입의 증가는 이미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계의 해고율을 더 늘어나게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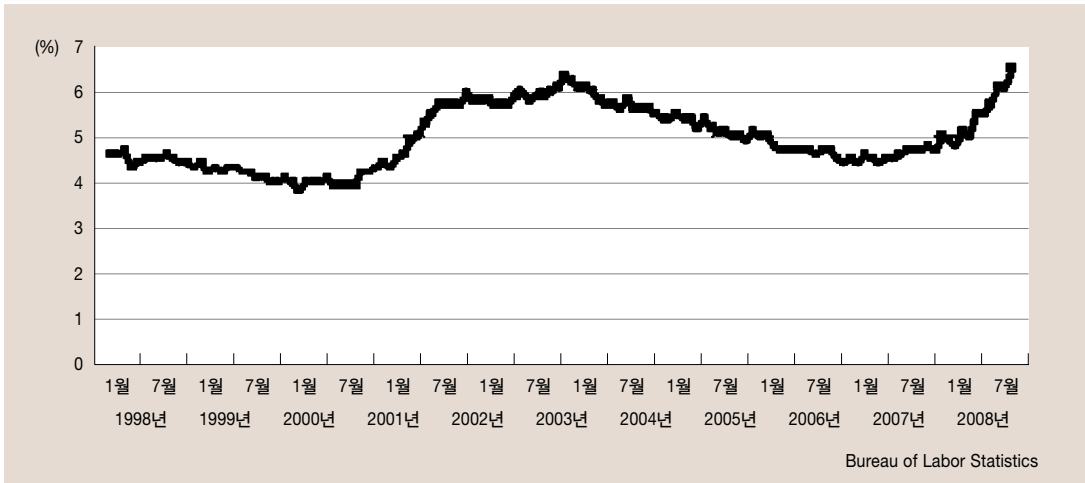
2) Table A-1. Employment Status of the Civilian Population by Sex and Age,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news.release/empsit.t01.htm>

3) Economic Projections for the US, Japan, and the Euro area, OECD, <http://www.oecd.org/dataoecd/55/17/41666279.pdf>

4) 건설업에서는 2007년 이래 약 65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5) 의료업과 관광업의 일자리는 지난해의 추세를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실업률



자료 : B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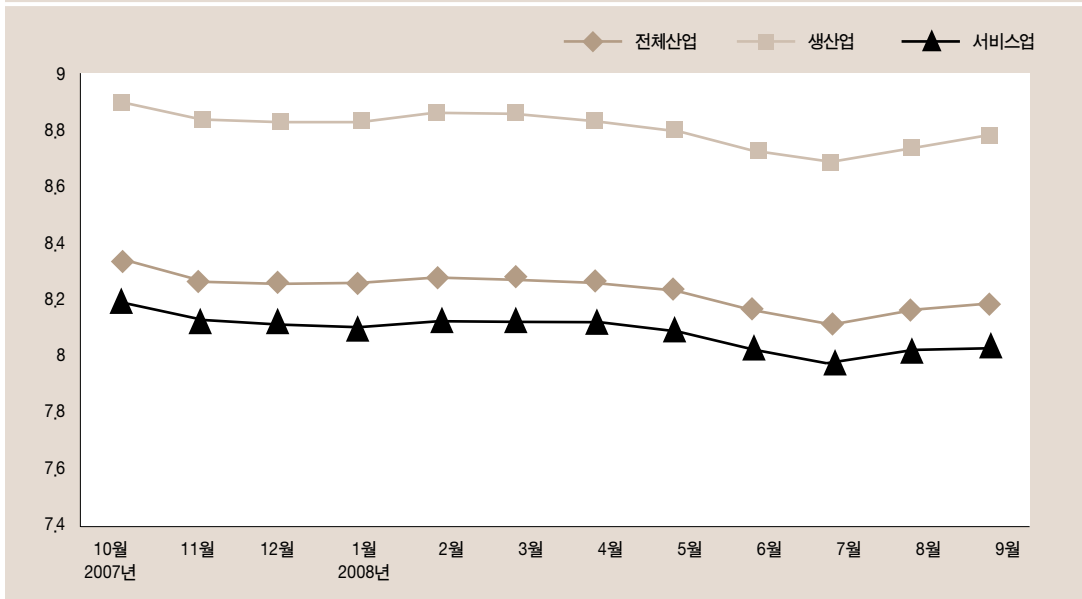
■ 노동시간과 임금

지난 1년 동안 각 사업장별 노동시간과 임금은 큰 변화가 없었다. 생산업체를 비롯한 사업체의 10월의 주간 근무시간은 33.6시간으로 그대로였고 제조업체의 주간 근무시간은 40.6시간으로, 그리고 공장 등지의 근무시간외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10월 한 달 동안 전체 사업장들의 명목임금은 0.2% 올랐는데(지난 12개월간 시간당 수당은 3.5 달러 올랐고 주간당 수당은 2.9% 올랐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물가 상승과 계절 주기를 고려해 1,982 미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실질임금⁶⁾은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와 생필품, 그리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근무시간이나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B-11. Average hourly and weekly earnings of production and nonsupervisory workers on private nonfarm payrolls by major industry sector and selected industry detail, seasonally adjusted, Bureau of Labor Statistics, <ftp://ftp.bls.gov/pub/suppl/empst.ceseeb11.txt>

[그림 2]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1982년 미 달러 기준)



자료 : BLS.

■ 시간제 근로자

현재의 좋지 않은 경기를 대변하듯이 2008년 10월 한 달 동안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⁷⁾는 64만5,000명 증가해 670만 명으로 늘었다.⁸⁾ 지난 12개월 동안 약 230만 명의 증가하였으니 지난 한 달간 약 1년의 1/4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이상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도 증가할 것이다.

7) 원래 전일제 근로자로 일하고 싶지만 전일직을 찾지 못해서 현재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8) Table A-5. Employed Persons by Class of Worker and Part-time Stat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news.release/empst.t05.htm>

■ 노동조합 조직률

1983년 약 20.1%를 기록했던 전체 노조 가입률이 2007년에 약 12.1%로 떨어졌을 정도로 미국 노조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새롭게 노동조합이 조직된 일터와 조직되지 않은 일터의 임금과 고용률, 그리고 생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⁹⁾ 등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 조직되는 데에는 두 방향의 압력이 작용한다. 조합이 설립되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오르면 조직률이 증가하겠지만, 그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확률은 낮아진다.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현재로서는 앞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고용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지만 조합의 설립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오히려 근로자들은 소극적이 될 수 있다.

■ 근로자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

이러한 때에 현재 미국 노동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자자유선택법이다. 2005년에 처음 소개된 후 2007년 3월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2007년 6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fillibuster)로 부결된 이 법안은 노조대표권 인증 선거 절차 없이 근로자들이 서명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법이다. 또 새로운 노동조합과 회사가 90일 안에 첫 협약을 맺지 못할 경우 노사 양측 다 연방조정중재기구(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후 30일 이후에도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구속적 중재(binding arbitration)를 받게 한다.¹⁰⁾ 실제 노동조합이 새롭게 들어선 후에

9) Inardo J. and David Lee, "Economic Impacts of New Unionization on Private Sector Employers: 1984-2001,"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9, No. 4

10)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0:H.R.800>:

도 1/3 이상의 경우 고용자와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조합이 힘을 잃는 현실에서¹¹⁾ 근로자자유선택법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늘리고 또 단체교섭에 있어 조합 측에 힘을 실어줄 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근로자자유선택법에 대한 지지가 노동계의 전격적 지원을 가능케 한 만큼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이 취임 후 100일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수록 고용보장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을 막는 법이라는 재계의 반발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현재, 법안의 2009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 자동차 업계

2008년 7월까지 원유의 급상승과 금융위기가 겹쳐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계가 바로 자동차 업계이다. 제너럴모터즈,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사는 현재 정부로부터 구조금융의 여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자동차 업계가 무너질 때에는 직간접고용에 있어서 총 300만 명 정도가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²⁾ 미국 경제 전반으로 보았을 때는 첫 해만으로 600억 달러,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1,56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자동차 사업을 구제하기 위한 패키지를 준비한다고 했지만¹³⁾ 세 회사를 다 살리려고 할지 아니면 그 중에 선택을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현재 하원에서는 제너럴모터스, 크라이슬러, 그리고 포드사에 게 25억 달러로 책정된 구제 금융을 어떻게 쓸 예정인지 12월 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상태이고 여부는 12월 8일 표결에 부쳐진다.

11) <http://www.newsdaily.com/stories/tre4a8117-us-usa-obama-labor/>

12) <http://www.cargroup.org/documents/CARPressReleaseNovember42008.pdf>

13) <http://www.cnn.com/2008/POLITICS/11/16/obama.interview/>

■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 전반의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실업률은 2008년 10월 6.5%으로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월 한 달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가 24만 명에 달하면서 2008년 들어 1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당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만약 근로자 자유선택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오바마 취임 후 100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를 맞이하여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근로자자유선택법의 통과에 있어서 노사는 대립 양상을 보이지만 현재 자동차 업계의 예에서처럼 기업의 존폐 앞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력한다. 물론, 자동차 업계가 25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후 자동차 업계 내의 고용관계는 예측하기 어렵다. **KLI**